

매일 20년의 기록 그리고 클래식

maeil classic

20

HISTORY BOOK

매일 20년의 기록 그리고 클래식

maeil classic 20 HISTORY BOOK

maeil classic

찾아가고 초대하는 음악회

maeil classic

HISTORY BOOK

일러두기

이 책에 실린 모든 사진과 관객 후기는 사전 동의를 얻어 수록했습니다.
수록을 허락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USIC DIRECTOR'S MESSAGE

매일클래식은 지난 20여 년 간
‘찾아가고 초대하는 음악회로
전국 80여 곳에서 100여 회 공연을 통해
7만여 명의 관객을 만나왔습니다.

2003년 첫 공연부터 클래식 음악과 현대음악을 조화롭게 이어주며,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곡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매회를 거듭하며
다양한 연주자, 성악가, 연출가, 배우와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매일클래식이 그동안 쉬지 않고 한결같이 달려온 것은 일상에 지친 이들을
음악으로 어루만지고 기쁨과 소망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이 주는 힘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관객들의 진심 어린 공연 후기가 큰 힘이 되어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은 인간의 내면을 마주하게 하여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클래식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매일클래식이 걸어온 이유이자 또 앞으로 나아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후원해주신 매일유업 덕분에 20여 년 동안 매일클래식이 성공적으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100여 명의 예술가들과 공연을 관람해주신
7만여 명의 관객들, 매일클래식이 달려온 6천 킬로미터의 여정,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조금이나마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매일클래식 총감독 김 화 림

C O N T E N T S



PART I

매일클래식의 시작 찾아가다

- | | | |
|---|-------------------|----|
| 1 | 찾아가고 초대하는 음악회 | 20 |
| 2 | 클래식의 본질을 실내악에서 찾다 | 34 |
| 3 | 클래식 음악과 기업이 상생하다 | 38 |

PART II

매일클래식 프로그램 이야기 초대하다

- | | | |
|---|------------------|----|
| 1 | 매일클래식의 다채로운 연주자들 | 44 |
| 2 |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다 | 48 |
| 3 | 팬데믹이 불러온 공연장의 변화 | 54 |

PART III

매일클래식이 걸어온 발자취 돌아보다

- | | | |
|---|----------------|----|
| 1 | 포스터로 만나는 매일클래식 | 64 |
| 2 | 사진으로 보는 매일클래식 | 72 |
| 3 | 언론에 소개된 매일클래식 | 80 |
| 4 | 관객과 소통하는 매일클래식 | 82 |

부록

- | | | |
|--|----------|----|
| | 매일클래식 연표 | 84 |
|--|----------|----|





Ensemble

함께해서 더 빛나는 순간

매일클래식은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혼자 연주하는 독주보다는 서로의 소리를 경청하며
조화를 이루어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실내악 공연을 주로 해왔다.
연주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며
연주를 완성해가는 과정의 즐거움이 있다.
전도유망한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하여 협업하는 가운데
세대를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경험을 한다.
또한 성악과 기악, 오페라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Passion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

매일클래식은 음악의 힘을 전하려는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음악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잊고 있던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어린 시절 엄마 손 잡고 매일클래식 공연에서 처음 들었던 음악을

청년이 되어 다시 들을 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감정이 떠오른다.

음악은 시공간을 뛰어넘고 마음을 넘나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매일클래식은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사랑하고 즐기도록

열정적으로 음악의 힘을 계속 전해왔다.

Spirit

영혼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노래

매일클래식은 희망을 들려준다.

음악은 상상력, 창의력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불어넣어
슬프거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

매일클래식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메신저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이들을 찾아가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음악을 즐기도록
늘 길을 내어주는 매일클래식이다.



Timeline

매일클래식 20년, 아름다운 여정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결같이 걸어온
매일클래식의 여정은 관객, 연주자들과
함께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10TH
ANNIVERSARY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제1회 Music & Life
- 제2회 명성황후 김원정과 함께하는 매일클래식
- 제3회 Drama & Life, 명성황후 김원정과 함께하는 매일클래식
- 제4회 스페인의 향기
- 제5회 스페인의 향기 II
- 제6회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과 함께하는 'Romantic Spring'
- 제7회 뉴욕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과 함께하는 'Memory of Autumn'
- 제8회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펠리 초청 '현악기의 향연'
- 제9회 벨기에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초청 '아름다운 만남'
- 제10회 ~ 제11회 Mozart & Bernstein
- 제12회 ~ 제13회 Mozart & Bernstein
- 제14회 Mozart & Bernstein
- 제15회 가을의 소리
- 제16회 봄의 기운
- 제17회 바로크 한마당 'Baroque Extravaganza'
- 제18회 매일클래식 10주년 기념 매일클래식과 함께하는 오페라 'Opera in Maeil Classic'
- 제19회 가을의 어느 멋진 날

Timeline

매일클래식 20년, 아름다운 여정



2014

제20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제21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2015

제22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제23회 가을의 인사

2016

제24회 봄의 속삭임
'Viennese Style'
제25회 보헤미안 여행

2017

제26회 풍자와 저항
'Mozart & Verdi'
제27회 풍자와 저항 II
'Mozart & Verdi'

2018

제28회 Connect to Concert
제29회 매일클래식 15주년 기념
with 클래식안양상블

2019

제30회 Connect to Concert II
제31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삶과 음악 이야기'

2020

제32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삶과 음악 이야기'
제33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편지콘서트'

2021

제34회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
제35회 교직원을 위한
일상 속 예술로의 초대

2022

제36회 Folks in Farmer's Village
제37회 지금 그리고 얼마 전
'NOW AND A TIME AGO'

2023

제38회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
시간과 공간 1. 나를 찾아서
시간과 공간 2. 커피 하우스와 카바레
시간과 공간 3. 매일클래식이 소개하는
오늘의 음악
시간과 공간 4. 오페라의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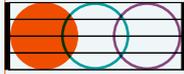
• PART I

매일클래식의 시작

찾아가다

매일클래식은
관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공연이 아니라,
직접 관객을 찾아가는 공연이다.
모든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느끼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서 온 매일클래식,
그 시작과 20여 년의 행보를 들여다본다.





찾아가고 초대하는 음악회

매일클래식, 첫발을 내딛다

2002년,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은 김화림 감독과 함께 기업과 문화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일본의 주류회사 산토리가 1986년 위스키 출시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클래식 공연장 산토리홀을 세운 것처럼 매일유업도 클래식 음악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김화림 감독은 클래식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실내악으로 관객들을 찾아가고 초대하는 클래식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매일클래식 20여 년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29회 매일클래식 롯데콘서트홀(2018)

파격적인 첫 공연

2003년 첫 공연은 고전 작품뿐만 아니라 동시대(Contemporary) 20세기 곡들로 구성하고, 한국 작곡가 김기영의 작품에 현대 무용을 곁들인 아주 신선한 기획으로 무대를 연출했다.

당시에는 동시대 음악가의 곡을 연주했을 때 관객이 느끼는 낯설음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것 같다. 매일클래식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기획으로 다소 파격적이거나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도 작곡가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현대곡이었고 당대에는 때때로 난해하다 여겨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많은 현대곡들 가운데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곡처럼 오래도록 관객 곁에 남을 작품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클래식은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제1회 매일클래식(2003)

관객의 마음을 열다

2002년 매일유업은 임산부들을 위한 매일태교음악회를 개최했다. 예비 엄마와 태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청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라고 한다. 태교음악회에서 김화림 감독은 서울대 소아정신과 조수철 박사와 대담을 진행하고, 태교에 좋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곡들을 들려주었다. 이 아름다운 클래식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열망으로 매일태교음악회를 매일클래식으로 확대시켜 개최했다.

사람들은 익숙함을 좋아한다. 낯선 음악을 들으면 대부분 즐기기는 불편해한다.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관람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음악회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일 테다. 음악회에서 겪는 이 낯설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연주자가 먼저 곡에 대한 해설로 대화의 문을 두드리면 관객도 마음을 열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그렇기에 김화림 감독은 익숙한 곡들을 무대에 올릴 때도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곡들에 대한 해설과 에피소드, 연주자들의 리허설 과정 등을 소개해왔다. 덕분에 매일클래식 관객은 다른 음악회보다 공연을 더 잘 이해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



제27회 매일클래식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2017)



제38회 매일클래식 롯데콘서트홀(2023)

인연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매일클래식과의 첫 만남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고, 그 인연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행한 매일유업, 우리의 인연은 희망과 행복을 이어주는 울림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남다른 기획
색다른 프로그램

매일클래식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색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 연주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2006년 매일클래식의 첫 해외 초청 연주자인 스페인의 젊은 피아니스트 데이빗 고메즈(David Gomez)는 국내 관객에게는 생소한 스페인 작곡가들의 곡으로 열정이 넘치는 공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07년에는 뉴욕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Allen Won)을 초청하여 현악 4중주와 색소폰의 이색적인 만남을 선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소폰을 재즈나 밴드에서 연주하는 악기로만 알고 있는데 실내악과 잘 어울리는 클래식 악기라는 것을 매일클래식에서 보여주었다. 색소폰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알렌 원의 멋진 무대였다.

2008년 5월에는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펠리(Marco Cappelli)를 초청하여 현악기와 기타 선율의 이색적인 만남을 선보였다. 11월에는 벨기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Denis Sungho)를 초청하여 기타와 플루트, 현악 4중주가 빛어내는 실내악 연주를 들려주었다.

2009~2011년에는 뮤지컬 ‘명성황후’의 소프라노 김원정과 타악기 앙상블 그룹 ‘앙상블 리드미코’가 ‘Mozart & Bernstein’ 프로그램으로 11번의 공연을 함께했다. ‘앙상블 리드미코’는 우리나라 각 오케스트라의 수석 타악기 연주자 5명으로 이루어진 타악기 앙상블이다.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타악기로 연주해 생동감이 넘쳤고, 소프라노 김원정과 테너 강연종이 주제곡을 불러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2013년에 열린 10주년 기념공연은 평소보다 규모를 키워 더 많은 연주자와 음악가들을 초청했다. 3월에는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4명의 성악가들을 초청하여 성악과 기악의 조화가 아름다운 오페라 공연을



제5회 매일클래식 춘천문화예술회관(2006)
매일클래식의 시작을 함께한 한도문 前 본부장(왼쪽 첫 번째)



제13회 매일클래식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2010)



제17회 매일클래식 포항 문화예술회관(2012)



제28회 매일클래식 영산아트홀(2018)



제29회 매일클래식 롯데콘서트홀(2018)



제31회 매일클래식 왕북초등학교(2019)

했다. 오페라 전문 용어와 오페라 감상법을 소개하여 관객들이 오페라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다. 11월에는 소프라노 박지현과 국내외 실력 있는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고창, 광주, 장성의 학교들을 찾아가 가을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음악을 들려주었다.

2014~2015년에는 소극장 ‘산울림’과 협업하여 연극과 음악의 조화가 아름다운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를 공연했다. 베토벤이 남긴 편지, 일기, 유서 등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에 베토벤의 명곡 라이브 연주가 생생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도의 공연이었다. 관객들은 배우의 실감나는 연기와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연주를 통해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배우와 연주자는 물론이고 관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였다.

매일클래식 15주년을 맞이한 2018년 4월에는 ‘Connect to Concert’라는 주제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전도유망한 국내 젊은 연주자들과 공연장을 찾은 관객을 ‘음악’으로 연결하는 특별한 무대였다. 11월에는 ‘젊은 음악, 재미있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평받는 챔버오케스트라 ‘클래식안 앙상블’을 초청하여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신선한 무대를 선보였다.

2019년에는 ‘매일스쿨클래식’이라는 타이틀로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를 공연장이 아닌 초등학교를 찾아가 공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11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불멸의 작곡가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라이브로 펼쳐지는 연극과 음악의 하모니로 인해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

The Show Must Go On!

‘매일스쿨클래식’ 공연의 성원에 힘입어 매일유업은 2020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클래식 음악 감상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시 22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학교를 찾아가 공연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공연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관객들에게 다가갈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 영상 콘서트를 기획했다. ‘베토벤의 편지콘서트’ 영상을 제작해 사전 신청한 학교들에 공유하여 매일클래식 공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제33회 매일클래식 ‘베토벤의 편지콘서트’ 영상(2020)

20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없어 두 번째 영상을 제작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과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거슈윈, 스트라빈스키, 라벨의 곡으로 구성된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를 촬영했다. 100년 전 파리에서 우연히 만난 세 작곡가들의 곡을 감상하면서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에는 고창 매일유업 상하농원에서 다양한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구성된 ‘Folks in Farmer’s Village’를 촬영했다.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이 담긴 ‘Folks in Farmer’s Village’는 녹음, 연출, 촬영, 편집 등 많은 정성을 기울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관객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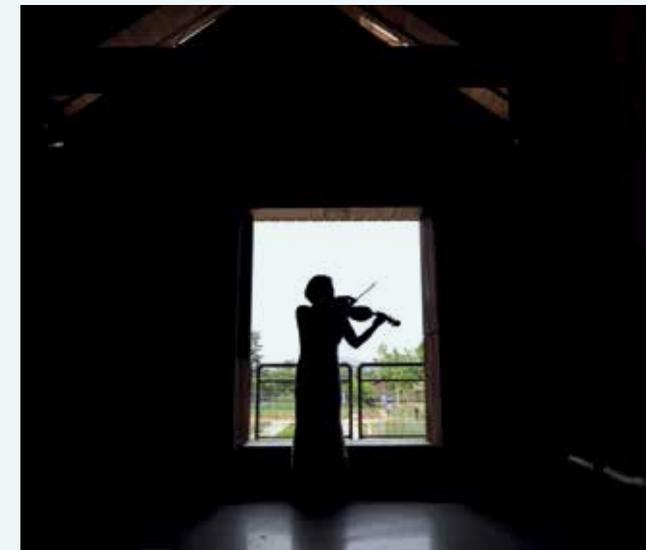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인 2022년 11월, 드디어 라이브 공연을 재개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진 일상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을 다시 라이브로 듣는 그 감격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연주자들과 성악가들은 슈만, 브람스, 리스트, 말러의 곡들로 다채로운 기악과 성악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3년 만의 라이브 공연이라 앙코르 요청이 많았다. 밤늦게까지 공연이 이어졌지만 그동안 관객과의 만남에 목말랐던 연주자들은 열정적인 연주로 화답하며 지칠 줄 몰랐다.



제34회 매일클래식 매일유업 평택공장(2021)



제37회 매일클래식 서울 롯데콘서트홀(2022) | 왼쪽 첫 번째 조성형 매일유업 FS총괄대표, 세 번째 매일홀딩스 김정완 회장, 다섯 번째 매일유업 김선희 부회장과 함께



제36회 매일클래식 매일유업 상하농원(2021)



제36회 매일클래식 매일유업 상하농원(2021)

네 번의 공연으로 보여준 매일클래식의 20년

2023년에는 매일클래식 20주년을 맞아 롯데콘서트홀과 공동기획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네 번의 시리즈 공연을 준비했다. 매일클래식 실내악 공연의 집대성이자 확장판인 20주년 기념공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을 연극, 성악, 오페라 등 여러 장르와 협업하여 더욱 다채로운 무대였다. 시대를 대변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클래식의 본질을 만나볼 수 있는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공연을 소개한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는 ‘클래시칸 앙상블’

4월 첫 번째 공연

‘나를 찾아서’

첫 공연에서는 연극 ‘나를 찾아서’와 현악 오케스트라 ‘클래시칸 앙상블’의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다.

김화림 감독과 임정은 작가는 연극과 음악의 조화로운 공연을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기획했다. 연극 ‘나를 찾아서’는 배우이자 작가인 임정은의 창작 작품으로 주인공 제이가 유년, 청년, 중년의 모습으로 등장해 성장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연출가 홍성연이 합류하면서 중년 제이役に 남명렬 배우를 비롯해 아역 윤희동 배우까지 캐스팅했으며, 무대 주위를 객석이 에워싸는 빈야드(포도밭) 형태의 롯데콘서트홀 공간적 특성을 살린 동선으로 연극적인 요소를 더했고, 극적인 조명과 높낮이가 다른 공간을 활용해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또한 극 사이사이에 젊고 패기 넘치는 ‘클래시칸 앙상블’이 멋진 연주를 들려주어 관객들은 더욱 흥미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연극 ‘나를 찾아서’에서 열연을 펼치는 배우들



제38회 매일클래식 롯데콘서트홀(2023) | 왼쪽 세 번째 고정수 언론홍보본부장 겸 ESG사무국장, 권태훈 매일홀딩스 대표, 오른쪽 앞줄 세 번째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



‘커피 칸타타’ 원전 연주를 들려주는 연주자들과 바리톤 조규희

6월 두 번째 공연

‘커피 하우스와 카바레’

두 번째 공연에서는 18세기 바로크 음악과 19세기 카바레 음악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1부에서 연주자들은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구한말 시대의 복장을 하고 18세기 독일의 커피 하우스를 상상하며 바로크 악기로 연주를 들려주었다. ‘커피 칸타타’는 커피 애호가였던 바흐의 유머와 위트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특별히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으로 연주하는 원전 연주 기법을 선보인 보기 드문 무대였다. 나레이션을 맡은 테너 김세일의 노래로 연주가 시작되고 소프라노 임소정이 딸 리첸 역을, 바리톤 조규희가 아버지 역을 맡아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2부에서는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이후 미국까지 유행했던 카바레 음악을 선보였다. 당시 지식인과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던 카바레는 우리나라 70년대 통기타 음악을 즐겼던 세시봉이나 요즘 언더그라운드 재즈바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카바레를 연상시키는 이색적인 조명과 소품들로 꾸민 무대에서 바리톤 크리스토퍼 딜런 허버트는 뉴욕 브로드웨이의 경험을 발휘하여 카바레 음악의 진정한 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커피 칸타타’ 원전 연주를 들려주는 연주자들과 소프라노 임소정



피아니스트 나경은과 바리톤 크리스토퍼 딜런 허버트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최재혁과 ‘양상블 블랭크’

10월 세 번째 공연

‘매일클래식이 소개하는 오늘의 음악’

세 번째 공연은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양상블 블랭크’와 함께 현대음악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동시대 작품에 대한 음악적 거리를 더 좁히는 무대였다.

리게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최르지 리게티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바이올린 솔리스트 박규민의 열정적인 무대는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또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최재혁의 첫 ‘오르간 협주곡’은 오르가니스트 최규미와의 협연으로 세계 초연되어 관객들의 많은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오르간 협주곡’은 작곡가 최재혁이 성당 특유의 울림을 연상시키는 롯데콘서트홀의 울림을 듣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오르간이란 악기로 공간에 쌓인 시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두 곡을 비롯하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의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현대 작품들로 인해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다.



더블 베이스리스트 유이삭과 첼리스트 배성우



오르가니스트 최규미



'라보엠'에서 열린 중인 소프라노 서선영, 장혜지, 테너 신상근, 바리톤 김종표, 베이스 신명준, 베이스 바리톤 허진

12월 네 번째 공연

'오페라의 사계'

음악감독을 맡은 나경은 피아니스트는 네 개의 다른 언어와 개성이 뚜렷한 오페라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오페라의 사계'를 주제로 한 갈라 콘서트를 선보였다. 연출 조은비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중심으로 계절의 변화와 캐릭터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 동선과 장면 전환 시간을 최소화하고 큐브박스과 조명, 스크린 영상을 사용해 각 오페라의 공간적 분위기를 살려 관객이 공연에 흠뻑 빠져들게 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성악가들과 무대에 설 기회가 흔치 않은 영 아티스트들이 한 무대에 오른 파격적인 시도로, 영 아티스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피아노 포핸즈 버전으로 편곡한 오페라 곡들은 피아니스트 나경은과 피오토르 쿠프카의 절묘한 앙상블이 돋보여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벅찬 감동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 행복한 공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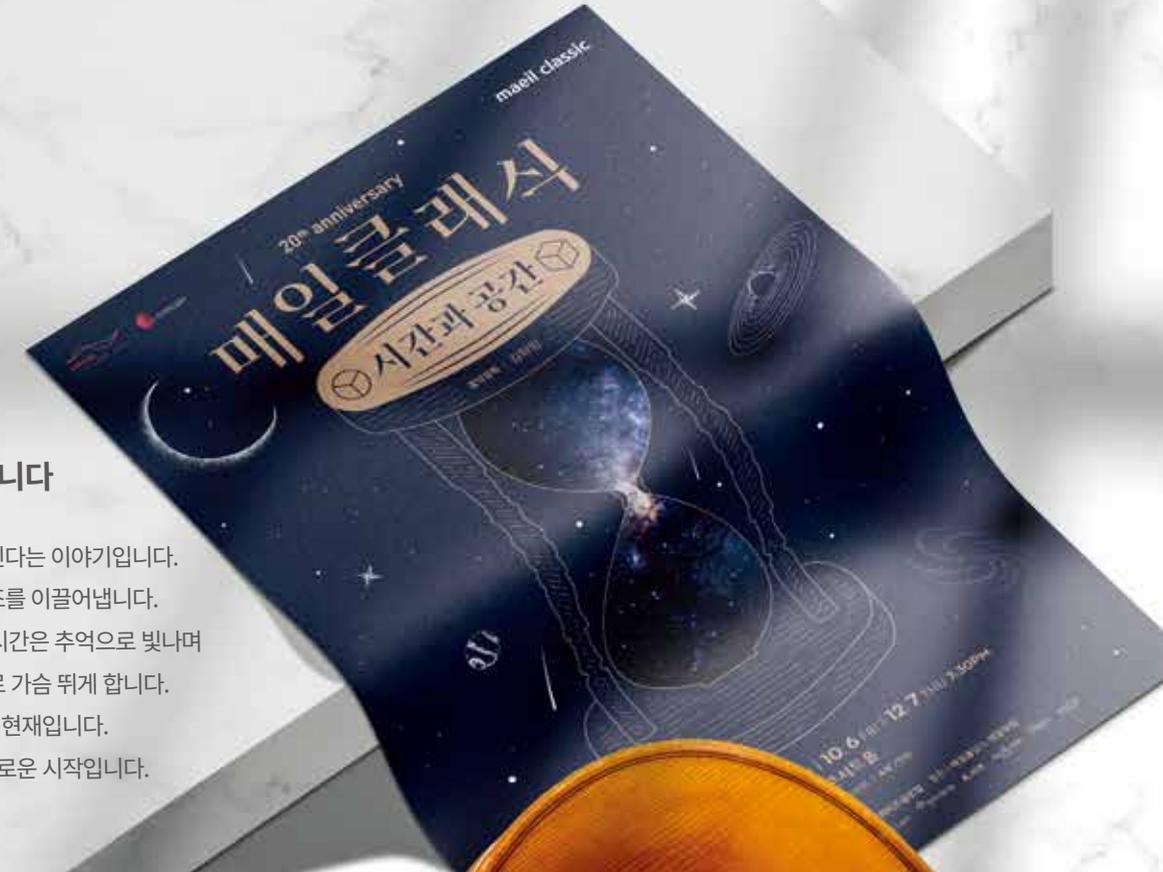
'로미오와 줄리엣' 영 아티스트 소프라노 차예은과 테너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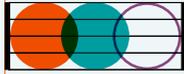


음악감독 나경은과 피아니스트 피오토르 쿠프카의 피아노 포핸즈

경험은 새로움을 만듭니다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함은 노련하게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냅니다.
 매일클래식과 함께한 20년의 시간은 추억으로 빛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 뛰게 합니다.
 '클래식'은 언제나 과거를 안은 현재입니다.
 '오늘 여기'가 매일클래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클래식의 본질을 실내악에서 찾다

매일클래식이 보여준 실내악

매일클래식은 보통 2-9명의 앙상블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실내악(Chamber Music) 위주의 공연을 해왔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20여 년 동안 실내악 위주로 공연한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매일클래식은 그동안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전국을 찾아다니며 지역문화회관, 학교, 군부대, 야외무대 등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실내악 공연을 해왔다.

실내악은 소규모 편성이기 때문에 아늑하고 울림이 좋은 적절한 장소만 있다면 적은 인원으로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한편으로 실내악은 아는 만큼 들리는 섬세한 음악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예술은 경험을 통해 가까워지고 삶 속에서 점차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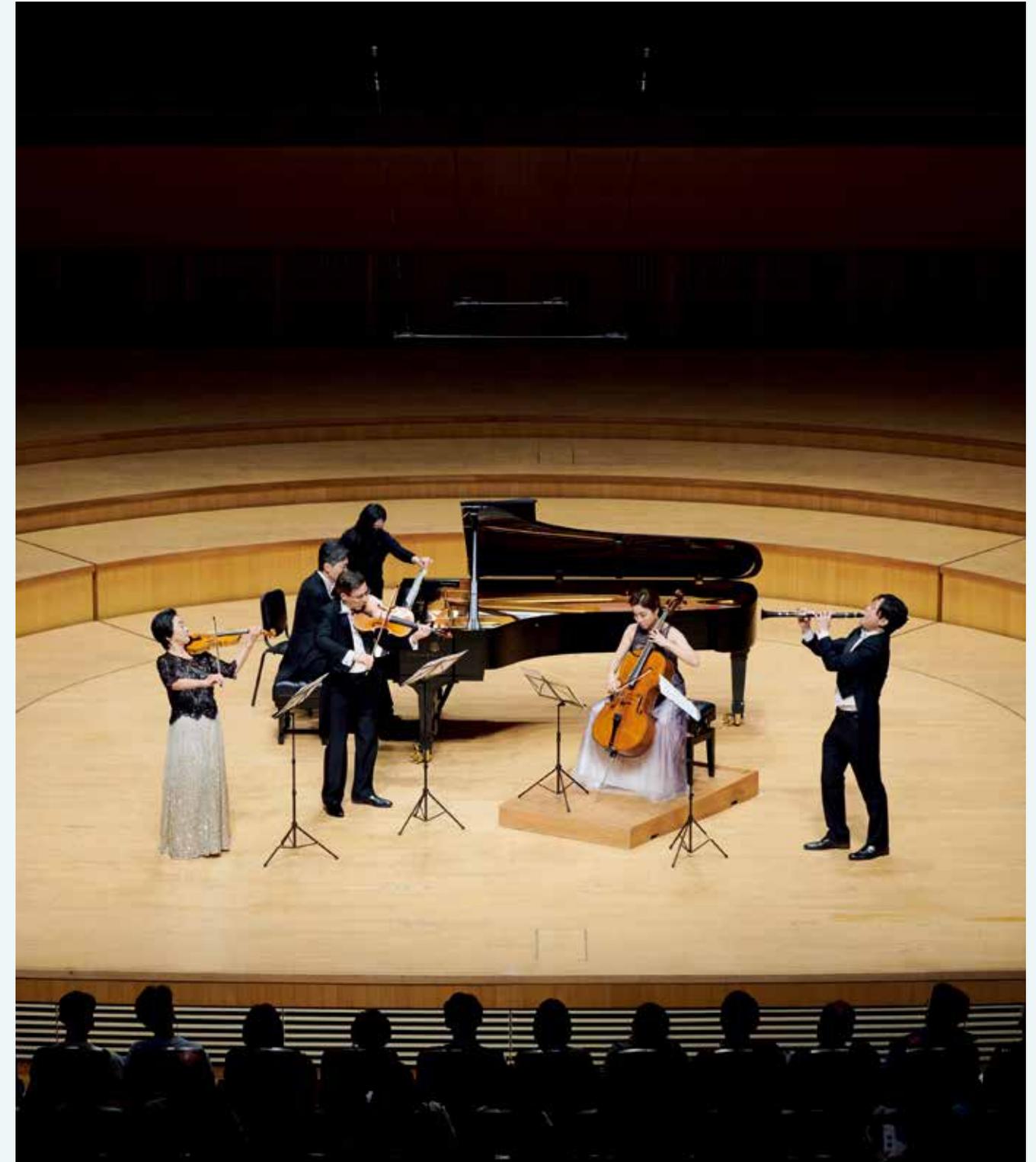
매일클래식 특별 공연 때는 다른 장르와 협업하여 실내악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0주년 기념공연은 성악가들을 초청하여 오페라 공연을 선보였는데, 오페라 전문용어와 오페라 감상법도 소개하여 관객들이 쉽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었다. 15주년 기념공연은 관객이 실내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15명으로 구성된 '클래식안 앙상블'을 초청하여 현악 챔버 오케스트라의 멋진 앙상블을 보여주었다. 20주년 기념공연은 롯데콘서트홀과 공동기획하여 네 번의 시리즈 공연을 펼쳤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을 연극, 성악, 오페라 등과 협업하여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을 만났다.



앙상블의 매력

매일클래식은 김화림 감독이 매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한다.
그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연주자를 초청하여 그룹을 만들어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획에 따른 연주자 구성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인다.
연주자 각각의 음악적 역량과 더불어 조화(Ensemble)가 중요한 실내악.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앙상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매일클래식 무대에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마르코 코펠리 등
출중한 연주 실력과 앙상블 감각을 두루 갖춘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소개한 것은
김화림 감독이 추구해온 음악적 도전이었다.
매일클래식이 전도유망한 연주자들을 발굴하여 같이 협업할 때 서로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다.
모든 연주자가 작곡가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으로 매일클래식만의 실내악이 탄생한다.



제37회 매일클래식 롯데콘서트홀(2022)



클래식 음악과 기업이 상생하다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메세나(Mecenat)라고 한다. 클래식 음악과 같은 깊이 있는 순수예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중예술과 달리 순수예술은 수요자가 적어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일유업의 메세나 활동은 기존의 문화재단과 결연을 맺거나 유명 연주자를 후원하기보다는 매일클래식이라는 음악회를 직접 기획하여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관객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매일유업은 매일클래식을 통해 고객에게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 소외계층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매일클래식 공연이 끝난 후에는 관객들에게 매일유업 제품도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저소득층 음악영재 사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후원하여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매일클래식은 이런 지원을 통해 클래식에 담긴 삶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찾아가고 초대하는 음악회'로 늘 관객 곁에 있었다. 항상 새로운 시도와 기획으로 클래식 공연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제30회 매일클래식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제38회 매일클래식 롯데콘서트홀



제30회 매일클래식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제28회 매일클래식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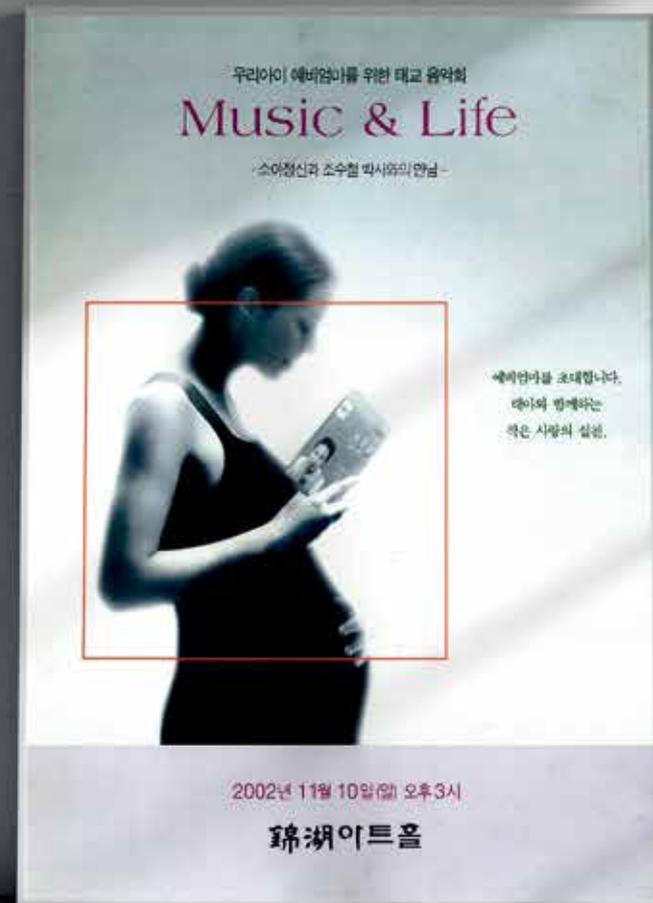
매일클래식을 처음 태교로 접했거나 매일유업의 분유를 먹었던 어린아이들이 자라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면 매일클래식의 20년 역사가 실감난다.
 이와 같이 관객들과 함께 성장한 매일클래식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피드백을 받아왔다.
 초창기에는 관객들이 감상평을 손편지로 보냈지만, 이후에는 매일아이 홈페이지 후기 이벤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의미 있는 공연을 이어올 수 있었다.

매일클래식이 음악으로 관객을 대하는 마음은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후원사인 매일유업이 고객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치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클래식의 변치 않는 예술적 가치처럼
 매일유업은 건강하고 좋은 제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행복한 경험을
 전하려는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제품의 본질에 충실한 매일유업과,
 클래식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풍성하게 꽃피운 매일클래식의 진정성은 동일하다.

당대 음악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베토벤의 후기 4중주 곡들을 지금은 전 세계가 추앙하듯,
 진정성이 담긴 본질적인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빠르고 가볍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시간의 중력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클래식의 본질이야말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좋은 장르 아닐까?

만남은 커다란 행복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교 음악을 들었던
 그 아이가 자라 매일클래식을 듣고,
 결혼하여 아이와 함께 매일클래식을 찾았습니다.
 매일유업이 준 작은 선물이 아이와 함께하는
 큰 행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 PART II

매일클래식 프로그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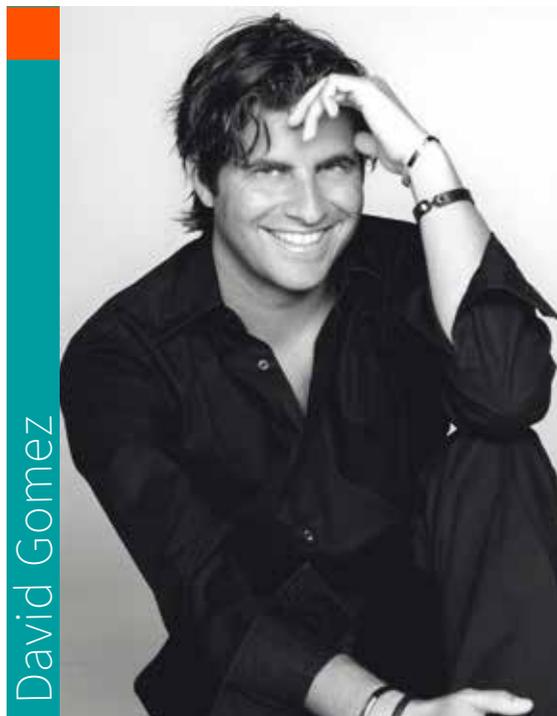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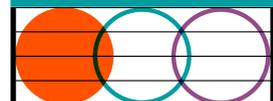
초대하다

매일클래식은 무료 공연이 아니라 초대하는 공연이다.

초기에는 매일유업 홈페이지에 응모해서 당첨된 이들에게 초대권을 보내다 보니 임신부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젊은 부모들이 많았다. 20년이 흐른 지금 매일클래식 관객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

매일클래식과 함께한 연주자들, 다양한 장소에서 만난 다양한 관객들, 팬데믹에도 영상으로 계속된 만남을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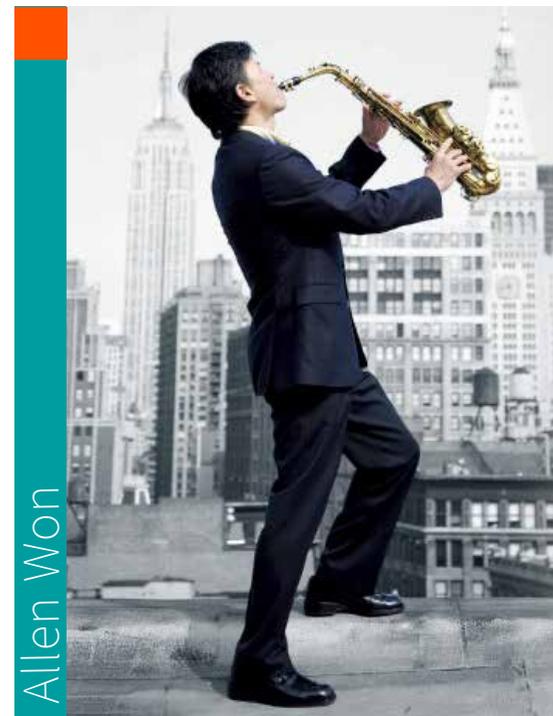




David Gomez

스페인 피아니스트
데이빗 고메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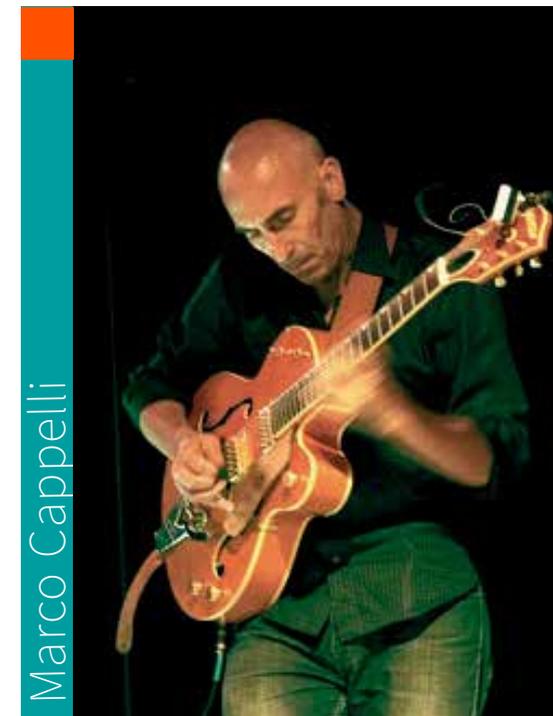
매일클래식은 2006년 4월과 11월, 피아니스트 데이빗 고메즈를 초청하여 스페인 작곡가들의 곡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데이빗 고메즈는 비제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카르멘 판타지, ‘기타와 현악기의 바이블’, 세비야의 작곡가 튜리나의 ‘피아노 4중주’ 등을 연주했다. 그는 아주 섬세한 피아노 연주자라서 무대 조명이 밝으면 안 되었다. 함께 연주하는 다른 연주자들은 악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대가 어두워 결국 아래에서 간접 조명을 사용해 데이빗 고메즈 얼굴이 벽 쪽으로 그림자로만 보이게 조율했다. 섬세한 멜로디와 장엄한 침묵 사이에서 그의 음악은 관객의 마음 깊은 곳에 강렬함을 선사했다. 공연 중에 데이빗 고메즈가 스페인 민요 가사를 낭송했는데 관객의 호응이 좋았다. 스페인 민요가 낯설지 않고 우리 민요처럼 흥겨웠다는 후기가 인상적이었다.



Allen Won

뉴욕 색소포니스트
알렌 원

국내에서는 색소폰을 재즈나 밴드에서만 연주하는 악기로 아는데 사실은 멋진 클래식 악기이기도 하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알렌 원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색소포니스트로 매일클래식이 보여주려는 음악의 다양성을 탁월하게 표현한 연주자다. 2007년 4월과 11월 매일클래식과 함께하며 ‘부쉬 5중주’를 비롯해 폴 모리스의 ‘프로방스의 풍경’, 낭만시대의 대표 작곡가 슈만의 ‘로맨스’ 등을 연주했다. 색소폰과 현악 4중주의 이색적인 만남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공연이었다. 알렌 원은 하와이 이민 3세대로 한국과 인연이 깊다. 매일클래식의 초청으로 한국에 처음 방문한 알렌 원은 할머니 나라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감격스러워하면서 당시 한국에서는 생소한 색소폰 클래식 연주를 들려주었다.



Marco Cappelli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펠리

매일클래식은 2008년 5월, 마르코 카펠리를 초청하여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을 감미로운 기타 선율로 들려주었다. 마르코 카펠리는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익스트림’ 기타리스트로, 1990년대 중반부터 현대음악 작곡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즉흥 연주로 주목을 받았다. 마르코 카펠리와 국내 기타리스트 서정실이 함께 기타 듀엣을 했는데,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곡이 난이도가 높아 리허설을 여러 번 했다. 현악 4중주와 함께 기타 5중주를 연주했는데 랄프 타우너 곡은 5중주,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곡은 기타 2중주로 했다. 당시 이런 현대곡들을 기타와 앙상블로 한 것은 연주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일클래식이라 가능했다. 마르코 카펠리는 재즈뿐만 아니라 클래식과 현대음악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초청되어 공연을 하고 있다.



Denis Sunggho

벨기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김화림 감독이 클래식을 기타와 함께 연주하는 것을 조명하는 시점에 우연히 TV에서 휴먼다큐 ‘사미인곡’에 출연한 벨기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를 보게 되었다. 드니 성호의 놀라운 연주 실력과 남다른 음악적 감각을 높이 산 매일클래식은 2008년 11월, 그를 초청하여 현악기와 플루트, 기타 선율의 이색적인 만남을 소개했다. 국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된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에 대한 관심은 그의 뛰어난 연주를 듣고 나서는 감동으로 바뀌었다. 드니 성호는 관객들에게 클래식 공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Ensemble Rythmico

즐거움을 두드리는

앙상블 리드미코

매일클래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뮤지컬 ‘명성황후’로 잘 알려진 소프라노 김원정과 함께 타악기 앙상블을 무대에 올렸다. 앙상블 리드미코는 우리나라 각 오케스트라의 수석 타악기 연주자 5명으로 구성된 타악기 앙상블 팀이다. 타악기를 매일클래식 무대의 주역으로 세운 것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다. 연주자는 5명이지만 악기는 40-50개나 된다. 한 사람이 악기를 6-7개씩 연주하며 다이내믹한 공연을 한다. 무대에 악기를 설치하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려 지방 공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날 밤 그곳으로 가서 당일 새벽 악기를 세팅하는 연주자들의 열정으로 공연이 가능했다. 당시 매일클래식 프로그램과 타악기를 함께 연주한 것이 처음이라 관객들이 매우 신나고 즐거워했다. 서울에서도 예술의전당 좌석이 부족할까 봐 걱정할 정도로 흥행한 공연이었다.



Noll Park

사랑의 하모니

박노을(첼로)

매일클래식은 2011년 이후 에르완 리샤와 박노을 부부와 함께 연주해왔다. 에르완 리샤는 섬세한 해석력과 따뜻하면서도 화려한 연주로 청중을 매료시키는 비올리니스트이다. 박노을은 정교한 테크닉과 명료하면서도 이지적인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이다. 독일에서 살던 이 부부는 서로 다른 도시의 오케스트라 수석이였다. 에르완 리샤가 먼저 KBS 교향악단 수석으로 왔고, 박노을이 수원시향 첼로 수석으로 와서 한국에 살고 있다. 한국에 온 이후 매일클래식과 인연이 닿아 최근까지 매일클래식의 가장 든든한 음악적 동료이자 연주자로 함께하고 있다.



Erwan Richard

사랑의 하모니

에르완 리샤(비올라)

CHAPTER
2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다
전국으로 찾아가 만난 관객

20여 년 동안 매일클래식은 클래식 공연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고, 평소에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왔다. 그 여정을 돌아보니 80여 곳에서 108회 공연을 했고, 6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했으며, 관객은 7만여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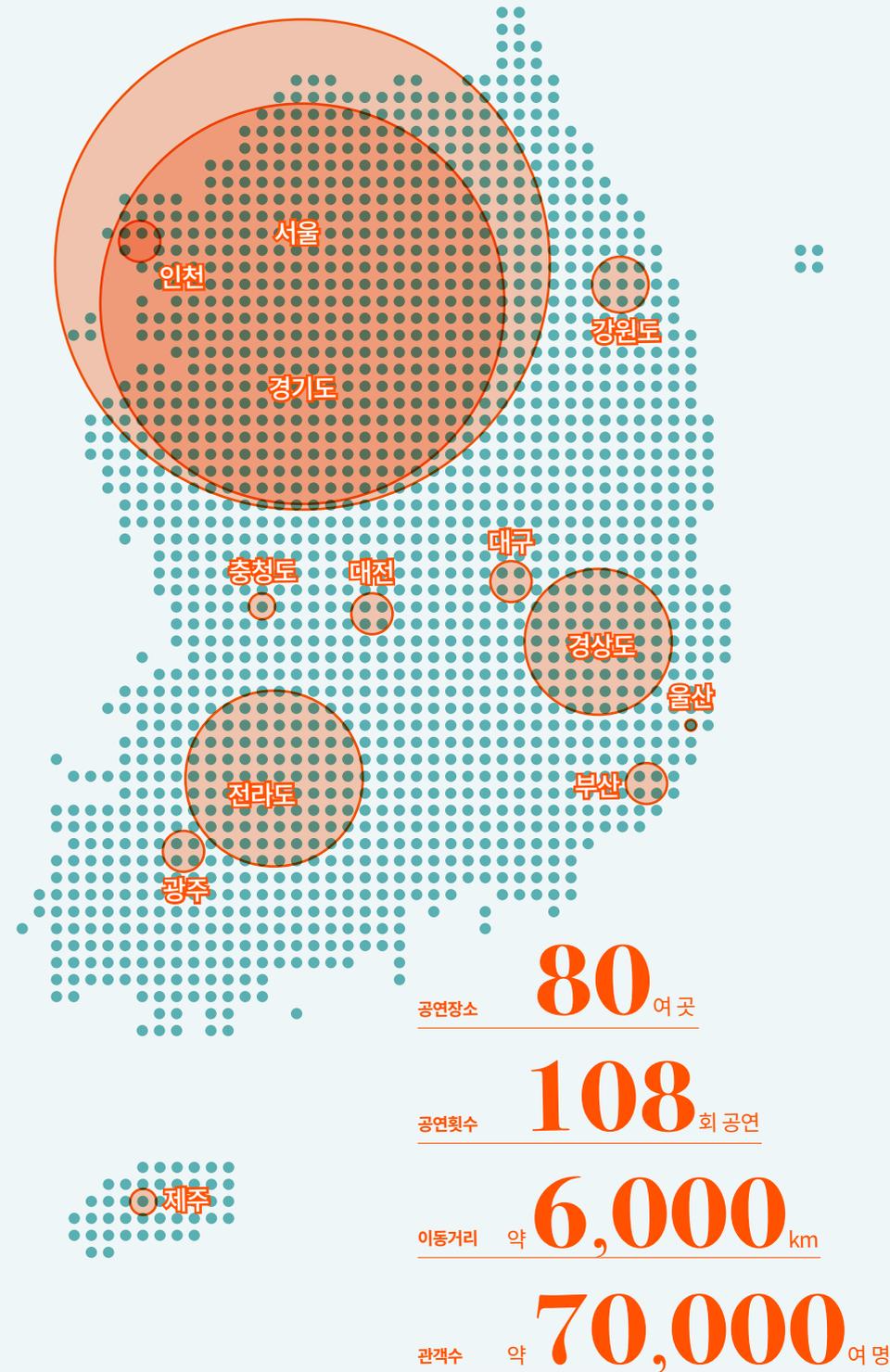
20년 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전국을 종횡무진하며 크고 작은 공연장, 학교, 공장, 군부대, 사찰 등에서도 공연을 해왔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 노동자, 군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매일클래식을 즐길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관객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클래식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쁘게 찾아갔기 때문이다.

매일클래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을 다니다 보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다.

모두 다룰 수 없어 그중 2013년 고창여자중학교에서 생긴 에피소드와 2015년 제주새싹꿈터, 경산 제2수송교육단,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산 범어사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제19회 매일클래식 고창 매일유업 상하공장(2013)



서울		33회
광주시		3회
대구시		3회
대전시		3회
부산시		3회
울산시		1회
인천시		3회
경기도		27회
	고양시	5
	과천시	1
	부천시	1
	부평시	2
	성남시	3
	수원시	2
	안산시	1
	안성시	1
	안양시	2
	양평군	2
	오산시	2
	용인시	1
	의정부시	1
	평택시	1
	하남시	1
강원도		4회
	원주시	1
	춘천시	3
충청도		2회
	공주시	1
	청양군	1
경상도		10회
	거제시	1
	경산시	2
	경주시	1
	사천시	1
	마산시	2
	안동시	1
	창원시	1
	포항시	1
전라도		12회
	고창군	5
	목포시	1
	여주시	1
	익산시	2
	장성군	2
	전주시	1
제주		2회
영상공연		3회

2013년 11월 매일클래식은 고창여자중학교, 고창 매일유업 상하공장, 광주 보문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장성드림투게더새싹꿈터를 찾아가 ‘가을의 어떤 멋진 날’을 공연했다.

매일클래식은 공연 장소가 정해지면 해당 지역의 학교들에 초대하는 편지를 보낸다. 학교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공연을 기대하며 학교 강당에 의자를 세팅하는 학교도 있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고창여자중학교는 본교로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고창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은 공연 관람 요청이 들어와 결국 당일 공연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다. 보통은 오후 4시 본공연만 하지만 고창여자중학교에서는 연주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생들을 위해 오후 2시 무대 리허설을 본공연처럼 했다. 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눈동자를 반짝이며 박수를 치고 앙코르를 외쳤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수줍게 바이올린 주법을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다. 이후 본공연에는 수백 명의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가을의 정서를 만끽했다.

2015년 3월에는 지구촌학교를 찾아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만나고, 8월에는 제주새싹꿈터를 찾아가 여름캠프를 열어 저소득층 학생들과 함께했다. 연극과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공연으로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10월에는 ‘가을의 인사’라는 주제로 거제 문화예술회관, 경산 제2수송교육단, 매일유업 경산공장, 부산 범어사를 찾아가다.

제주새싹꿈터에서는 2박 3일 동안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공연을 한 다음, 연주자들이 일일 음악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붐뱌커’라는 타악기로 연주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신나게 리듬을 익히며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는 경험을 했다. 매일클래식이 진행한 첫 여름캠프였다.

매일클래식이 군부대를 찾아가는 것은 한 사령관 때문이다. 1년 전 춘천에서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령관이 자기 부대가 걸그룹밖에 모르는데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클래식을 들려주고 싶다는 매일클래식을 초대했다. 사령관의 마음에 감격해 춘천에 있는 그 부대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부대인 경산 제2수송교육단과 연락하여 공연이 성사되었다. 공연을 요청한 사령관의 부대는 아니었지만, 걸그룹 노래에만 반응할 것 같은 군인들이 클래식에도 열광적으로 환호해 감격스러운 공연이었다.



제19회 매일클래식 고창여자중학교(2013)



제23회 매일클래식 거제 문화예술회관(2015)



제23회 매일클래식 경산 제2수송교육단(2015)



제22회 매일클래식 제주새싹꿈터 여름캠프(2015)

거제 문화예술회관 공연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거제도의 가장 오래된 고아원인 애광원의 여든이 넘는 원장님이 매일클래식 공연을 보고 감사 편지를 보내와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애광원은 6.25 전쟁 때 피난길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곳인데, 현재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전환된 곳이다. 원장님은 편지로 애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교사들이 매일클래식 공연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으며, 클래식을 통해 삶의 희망을 느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부산 범어사를 찾아간 것은 클래식을 접하기 힘든 스님들과 신도들을 위해서였다. 나무로 지어진 직사각형의 범어사 법당은 보스턴 심포니홀을 연상시킬 정도로 울림이 자연스러워 공연을 하기에 적합했다. 회색의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신도들, 우연히 들러온 클래식 음악에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온 등산객들의 울긋불긋한 복장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함께한 피아니스트 피오토르 쿠프카는 지금까지 연주한 공연장 가운데 범어사 법당이 최고라는 찬사를 보낼 정도로 음악과 장소가 잘 어우러지면서도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공연이었다.



제23회 매일클래식 부산 범어사(2015)



제23회 매일클래식 부산 범어사(2015) | 왼쪽부터 최형식 매일유업 전 이사, 조성형 매일유업 FS총괄대표, 김인순 매일홀딩스 전 명예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과 함께



제23회 매일클래식 | 공연을 마치고 부산 범어사 신도들과 함께 (2015)

CHAPTER
3

공연을 넘어
팬데믹이 불러온
공연장의 변화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음악 공연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 세계 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작업실에서 찍은 연주 동영상 또는 릴레이 동영상으로 관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공연장이 봉쇄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술가의 노력을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 매일클래식도 관객과 소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세 번의 영상 콘서트를 개최했다. 2020년에는 ‘베토벤의 편지콘서트’, 2021년에는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 2022년에는 ‘Folks in Farmer’s Village’ 영상 콘서트로 계속 공연을 이어갔다.

소극장 산울림에서 ‘베토벤의 편지콘서트’를 촬영하고, 후원사인 매일유업의 평택공장을 배경으로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를, ‘Folks in Farmer’s Village’는 아름다운 고창 상하농원에서 영상 콘서트를 제작했다. 영상 콘서트는 컨셉 기획부터 섭외, 촬영, 실내 스튜디오녹음, 영상 편집까지 라이브 공연보다 더 많은 노력과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공연의 감동을 전달할 고품질의 영상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현장에서 관람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매 장면마다 심혈을 기울였다. 영상 제작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 매일클래식의 열망을 누를 수 없었다.



● 첫 번째 영상 콘서트

제33회 매일클래식(2020)

베토벤의 편지콘서트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3회 매일클래식
'베토벤의 편지콘서트'(2020)
영상 콘서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편지콘서트’는 매일클래식의 첫 번째 영상 콘서트다. 서울시 22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찾아가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찾아가갈 수 없게 되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콘서트를 제작했다.

소극장 산울림에서 촬영한 ‘베토벤의 편지콘서트’는 베토벤의 음악적 열정과 삶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음악적 교육 콘텐츠다.

한 작곡가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매일클래식은 베토벤 시대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관한 내용, 괴테와의 만남 등 역사적 내용을 음악교사에게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수업한 후 ‘베토벤의 편지콘서트’를 시청하도록 했다.

임정은 배우의 해설과 함께 박상중 배우가 베토벤의 열정적인 삶을 연기하고, 극 사이사이에 베토벤의 대표곡을 연주하는 형식으로 기존 클래식 공연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체결한 서울시 22개 학교 외에도 신청을 받은 150여 개의 학교에 온라인 영상을 공유하여 영상 콘서트를 시청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다양한 후기를 받았다. 코로나 시대에도 음악과 연기가 함께하는 새로운 공연을 볼 수 있어 재밌고 흥미로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제34회 매일클래식(2021)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4회 매일클래식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2021)
영상 콘서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기에 우연히 마주친 매일클래식 영상으로 누군가 희망을 품길 바라며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를 매일유업 평택공장과 중앙연구소(MIC)에서 촬영했다. '우연히 만나게 되다'라는 의미의 조우. 100년 전 파리에서 조우한 세 작곡가 거슈윈, 스트라빈스키, 라벨의 작품을 야외공연장 또는 갤러리에서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 콘서트이다.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는 재즈적 요소가 가미된 피아노 협주곡으로 5일 만에 완성해 초연 때 피아노 솔로 파트를 거슈윈이 즉흥 연주한 곡이다. 클라리네스트 김한과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함께 그리는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인다.

라벨은 당시 파리 국립음악원 학장이자 스승인 포레에게 '현악 4중주'를 헌정했지만 포레는 1악장만 듣고 나가버렸고, 연주를 끝까지 들은 드뷔시는 극찬했다고 한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인 포레와 드뷔시가 새로운 음악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은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화림, 클라리네스트 김한, 피아니스트 김재원의 협연으로 매력적인 라벨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에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관객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100년 전 위대한 작곡가들의 곡이 현재까지 사랑받는 클래식인 것처럼 매일클래식도 관객에게 오랫동안 남길 기대한다.



제36회 매일클래식(2022)

Folks in Farmer's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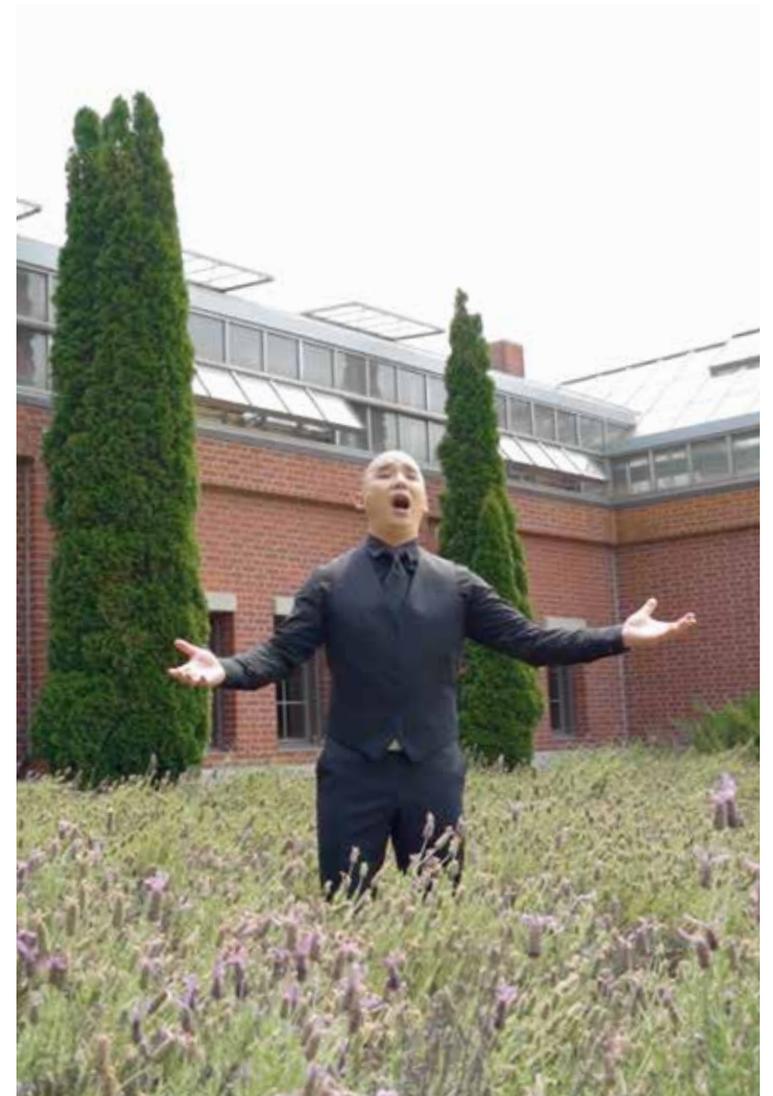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4회 매일클래식
'Folks in Farmer's Village'(2022)
영상 콘서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는 2022년 매일클래식은 매일유업의 고창 상하농원에서 'Folks in Farmer's Village'라는 주제로 영상 콘서트를 열었는데, 참신한 기획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촬영한 콘서트다. 클래식 음악의 긴 역사 속에서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상하농원에서 촬영해 목가적인 분위기가 극대화되었다.

김화림 음악감독과 오벌린 음악대학의 오페라 코치 나경은 교수의 곡 해설을 통해 관객은 공연에 더 몰입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 반주까지 겸하게 된 나경은 교수는 "성악과 함께하는 공연에서 피아노 반주란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요새는 피아니스트를 콜라보레이터(Collaborator), 즉 협업자라고 부릅니다. ... 그리고 오페라 코치란 오페라의 언어, 배역, 극의 흐름을 깊이 파악하여 오페라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성악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라고 오페라 코치의 역할을 소개했다. 한국민요와 오페라를 부르는 소프라노 장혜지와 테너 안대성의 연기가 작품의 묘미를 더했으며, 상하농원에서 펼쳐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화림, 첼리스트 이길재, 피아니스트 나경은의 호흡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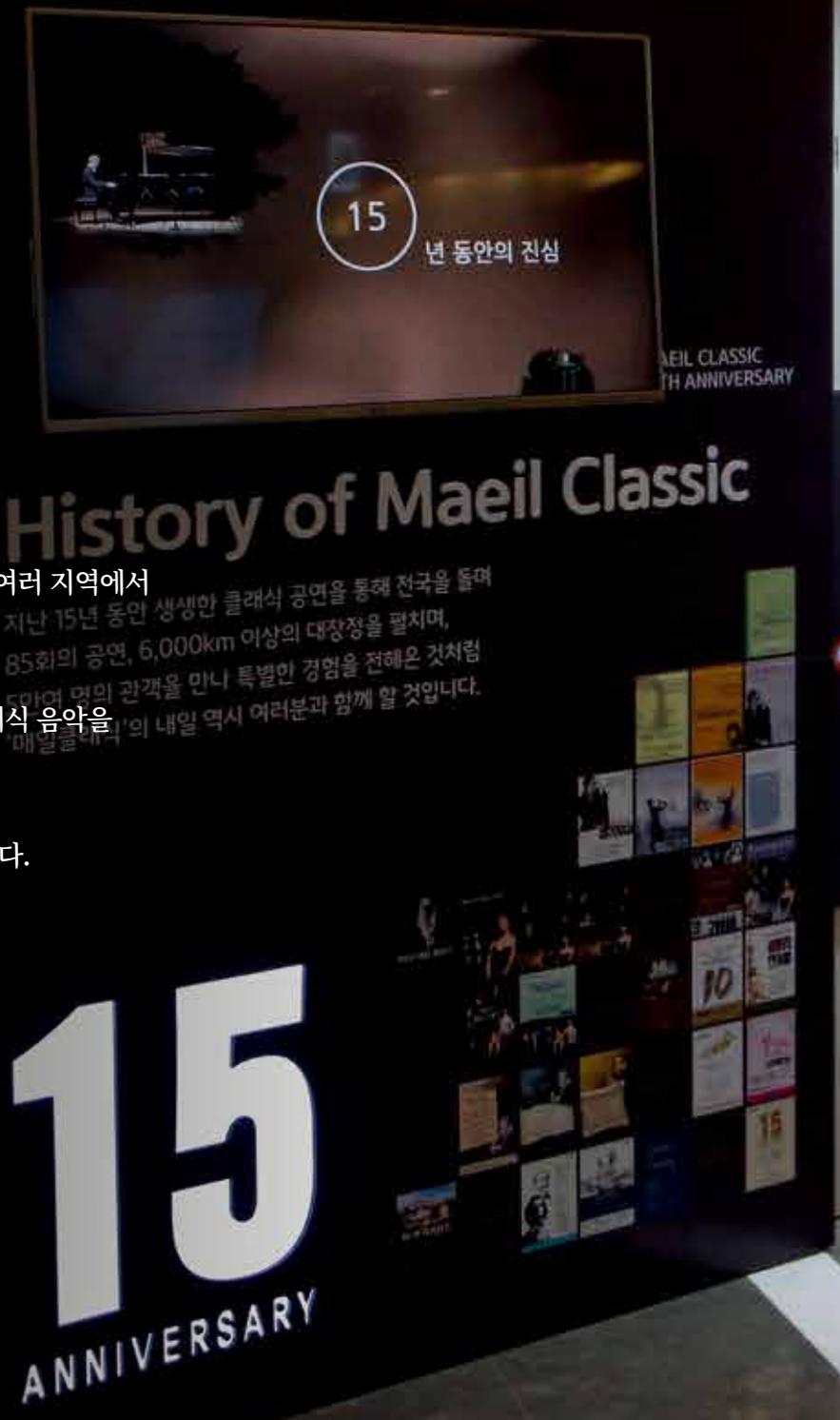
기악과 성악의 아름다운 조화가 지친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영상 콘서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팬데믹에도 쉬지 않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매일클래식의 열정이 느껴지는 공연이었다.



PART III

매일클래식이 걸어온 발자취 돌아보다

매일클래식은 2003년 첫 공연 이후로 매해 여러 지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만나왔다. 특별히 2023년 20주년 기념공연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널리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선보였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온 매일클래식의 빛나는 순간을 한데 모아보았다.



15년 동안의 진심

History of Mael Classic

15 ANNIVERSARY

지난 15년 동안 생생한 클래식 공연을 통해 전국을 돌며 85회의 공연, 6,000km 이상의 대장정을 펼치며, 50만여 명의 관객을 만나 특별한 경험을 전해온 것처럼 '매일클래식'의 내일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50,000
6,000km
85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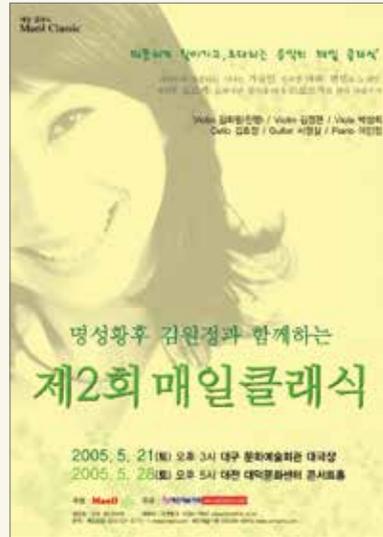


CHAPTER 1 포스터로 만나는 매일클래식

다양한 얼굴로 매일클래식을 알린 포스터,
공연과 관객을 위한 홍보물로 20년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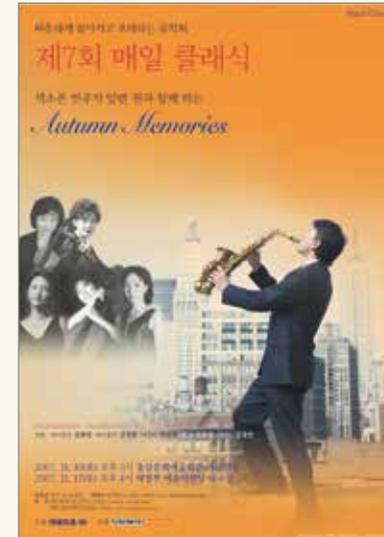
제1회 매일클래식(2005), 1회 공연



제2회 매일클래식(2005), 2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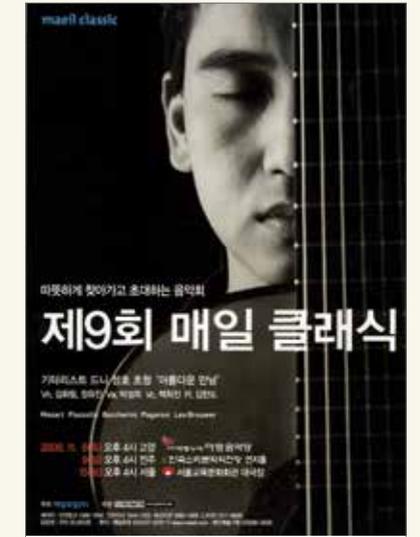
제3회 매일클래식(2005), 2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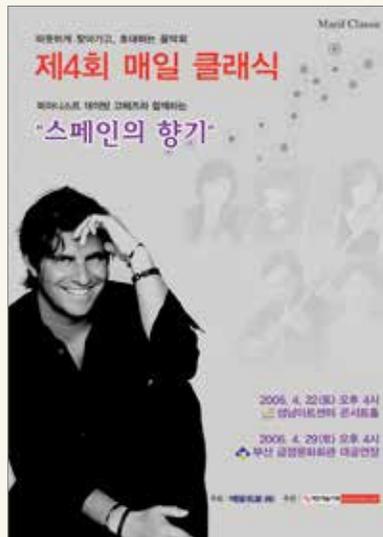
제7회 매일클래식(2007), 2회 공연



제8회 매일클래식(2008), 3회 공연



제9회 매일클래식(2008), 3회 공연



제4회 매일클래식(2006), 2회 공연



제5회 매일클래식(2006), 2회 공연



제6회 매일클래식(2007), 2회 공연



제10회 매일클래식(2009), 2회 공연



제11회 매일클래식(2009), 2회 공연



제12회 매일클래식(2010), 3회 공연



제13회 매일클래식(2010), 3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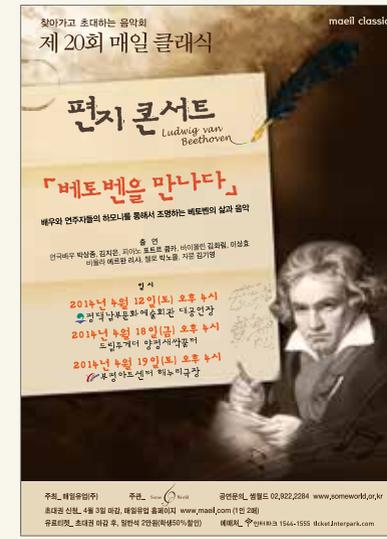
제14회 매일클래식(2011), 3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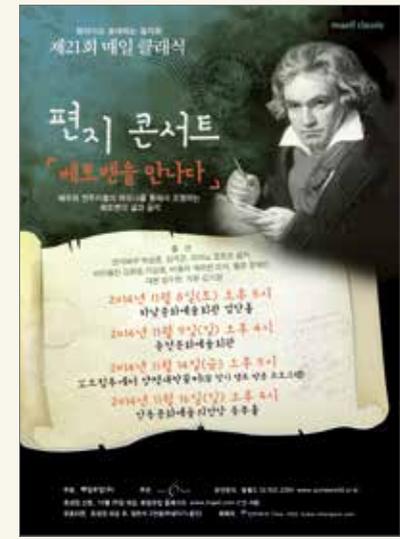
제15회 매일클래식(2011), 3회 공연



제19회 매일클래식(2013), 6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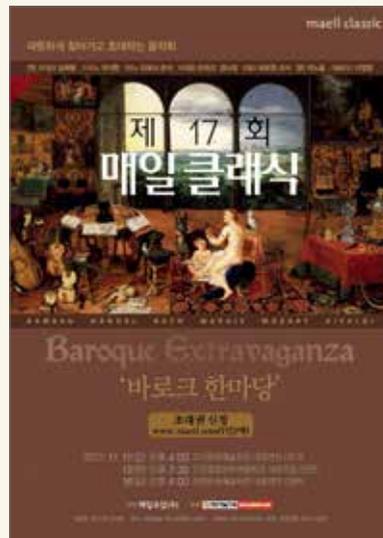
제20회 매일클래식(2014), 3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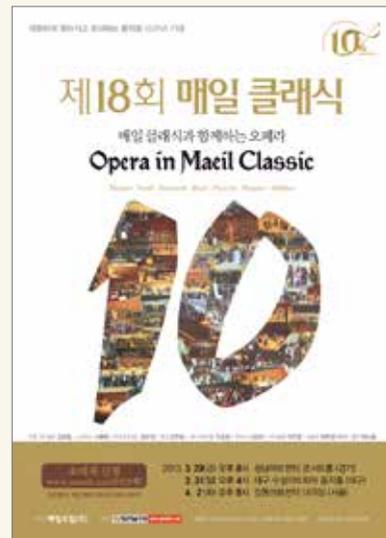
제21회 매일클래식(2014), 4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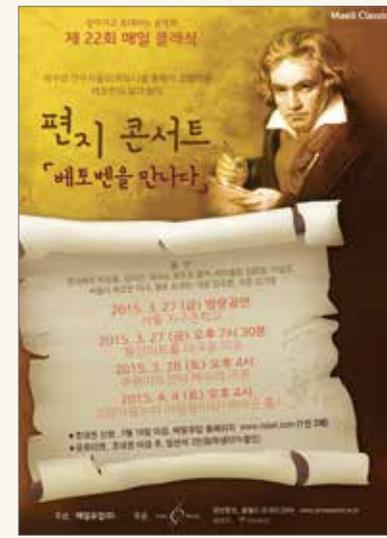
제16회 매일클래식(2012), 3회 공연



제17회 매일클래식(2012), 3회 공연



제18회 매일클래식(2013), 3회 공연



제22회 매일클래식(2015), 4회 공연



제23회 매일클래식(2015), 5회 공연



제24회 매일클래식(2016), 4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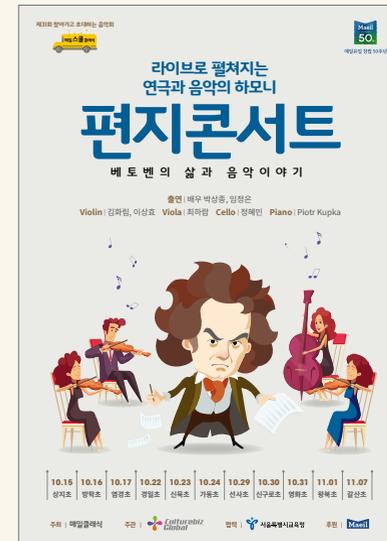
제25회 매일클래식(2016), 3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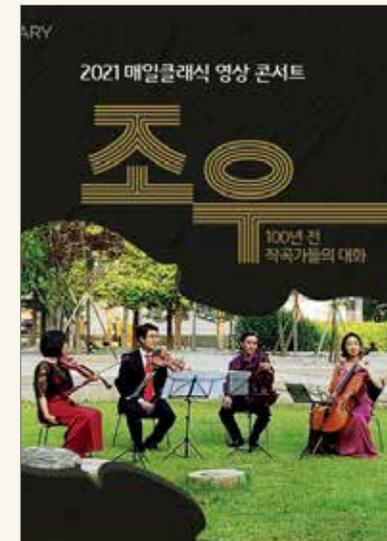
제26회 매일클래식(2017), 3회 공연



제27회 매일클래식(2017), 3회 공연



제31회 매일클래식(2019), 11회 공연
제32회 매일클래식(2020), 코로나로 취소
제33회 매일클래식(2020), 영상 콘서트



제34회 매일클래식(2021), 영상 콘서트



제35회 매일클래식(2021), 3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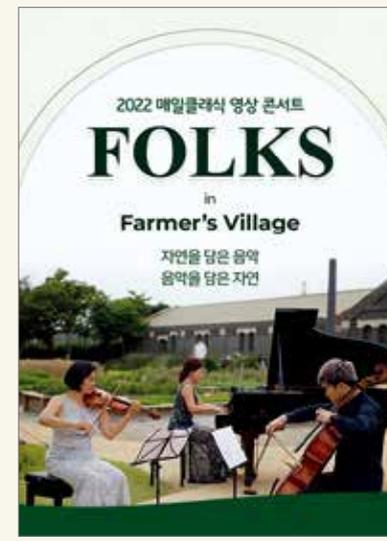
제28회 매일클래식(2018), 3회 공연



제29회 매일클래식(2018), 1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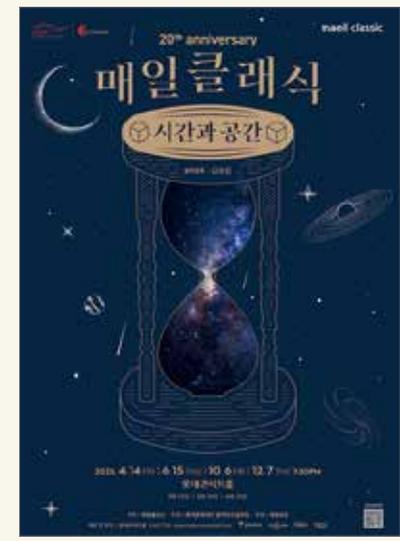
제30회 매일클래식(2019), 3회 공연



제36회 매일클래식(2022), 영상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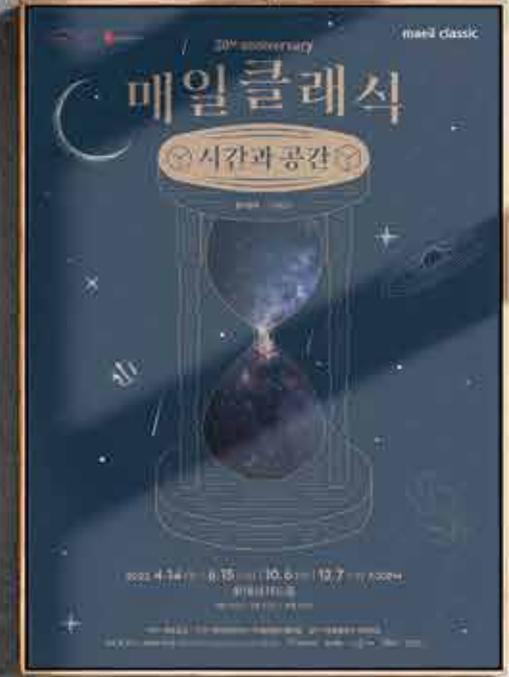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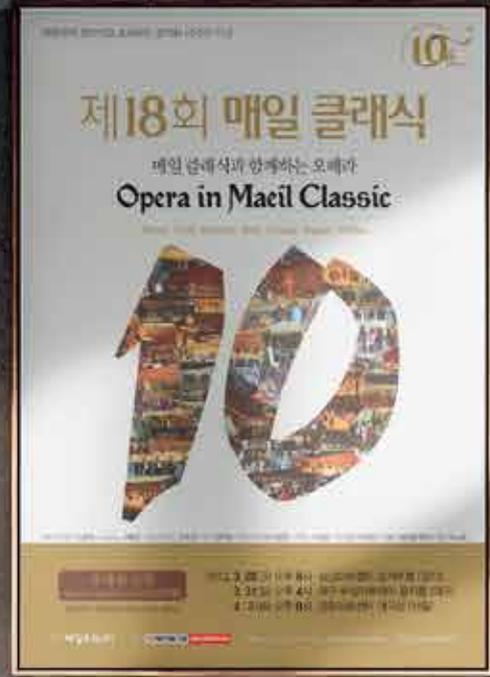
제37회 매일클래식(2022), 1회 공연



제38회 매일클래식(2023), 4회 공연

함께 걸어온 매일클래식

매일클래식 첫 공연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 새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
더 좋은 공연을 선물하기 위해
치열함과 즐거움으로 걸어왔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응원해주신 관객들과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10주년, 15주년,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매일클래식

매일클래식의 20년 역사가 담긴 사진들,
그때의 기억들로 다시 생생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제1회 매일클래식
Music & Life(2003)



Music & Life



제2회 매일클래식
명성황후 김원정과 함께하는 매일클래식(2005)



제3회 매일클래식
Drama & Life,
명성황후 김원정과 함께하는 매일클래식(2005)



제4회 매일클래식
스페인의 향기(2006)



제5회 매일클래식
스페인의 향기 II(2006)



제6회 매일클래식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과 함께하는
'Romantic Spring'(2007)



제7회 매일클래식
뉴욕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과 함께하는
'Memory of Autumn'(2007)



제8회 매일클래식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펠리 초청
'현악기의 향연'(2008)



제9회 매일클래식
벨기에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초청
'아름다운 만남'(2008)

Memory of Autumn

Mozart & Bernstein



제10회 매일클래식
Mozart & Bernstein(2009)



제11회 매일클래식
Mozart & Bernstein(2009)



제12회 매일클래식
Mozart & Bernstein(2010)



제13회 매일클래식
Mozart & Bernstein(2010)



제14회 매일클래식
Mozart & Bernstein(2011)



제15회 매일클래식
가을의 소리(2011)



제16회 매일클래식
봄의 기운(2012)



제17회 매일클래식
바로크 한마당
'Baroque Extravaganza'(2012)



제18회 매일클래식 10주년 기념
매일 클래식과 함께하는 오페라
'Opera in Maeil Classic'(2013)



제19회 매일클래식
가을의 어느 멋진 날(2013)



제20회 매일클래식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2014)



제21회 매일클래식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2014)



제28회 매일클래식
Connect to Concert(2018)



제29회 매일클래식
매일클래식 15주년 기념 음악회 with
클래시칸 앙상블(2018)



제30회 매일클래식
Connect to Concert II (2019)

Connect to Concert



제22회 매일클래식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2015)



제23회 매일클래식
가을의 인사(2015)



제24회 매일클래식
봄의 속삭임 'Viennese Style'(2016)



제31회 매일클래식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삶과 음악 이야기'(2019)



제32회 매일클래식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삶과 음악 이야기'(2020)



제33회 매일클래식 영상 콘서트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편지콘서트'(2020)

Trip to Bohemia



제25회 매일클래식
보헤미안 여행(2016)



제26회 매일클래식
풍자와 저항
'Mozart & Verdi'(2017)



제27회 매일클래식
풍자와 저항 II
'Mozart & Verdi'(2017)



제34회 매일클래식 영상 콘서트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2021)



제35회 매일클래식
교직원을 위한 일상 속 예술로의 초대(2021)



제36회 매일클래식 영상 콘서트
Folks in Farmer's Village(2022)



제37회 매일클래식
**지금 그리고 얼마 전
'NOW AND A TIME AGO'(2022)**



NOW AND A TIME AGO



제38회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
**시간과 공간 1.
나를 찾아서(2023)**



제38회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
**시간과 공간 2.
커피 하우스와 카바레(2023)**

Time & Space



제38회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
**시간과 공간 3.
매일클래식이 소개하는
오늘의 음악(2023)**



제38회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
**시간과 공간 4.
오페라의 사계(2023)**



관객과 소통하는 매일클래식

매일클래식 초기에는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과 김화림 총감독이 손편지로 소통했습니다. 이후에는 매일아이 홈페이지에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클래식으로 관객들이 보내온 후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과 격려, 새로운 도전을 받아 더 좋은 공연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보내온 몇몇 후기들과 김화림 감독의 답장을 실었습니다.

**제28회 매일클래식
해설과 신진 연주자들의 하모니가 좋았어요**

음악감독의 해설과 신진 연주자들을 발굴해 무대 기획을 마련한 점이 좋았습니다. 15년 동안 음악회를 개최해왔고, 꾸준히 연주자들을 무대에 세워 후원한 점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낯설은 곡은 해설을 해주어서 좋았고 연주자들의 기량도 훌륭했어요.
뽕뽕, 음악회 마치고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ssr0***

**제29회 매일클래식
매일클래식에서 선사한 특별한 선물**

임신하고 나서 매일아이 어플을 다운받아 각종 유용한 정보와 교육에도 참석하곤 하는데 기쁘게도 당점이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해 사전배경지식이 없어도 할 만큼 중간 중간 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 말고도, 우리처럼 클래식 음악을 즐기던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곡으로, 영광을 두 곡이나 해주어서 감동받은만큼 더 크게 박수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좋았고, 나같이 배우는 임산부들이 뱃속 아기를 위해 신할과 손질과 공연을 보러 온 모습이 너무 반갑고, 보기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클래식 공연 덕분에 우리 부부와 뱃속에서 귀 기울이고 있는 도담이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신청해서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sk8erg***

**제27회 매일클래식
부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풍자와 저항 II**

생각지도 않게 매일클래식을 관람하는 기쁨이 생겨 너무 좋았습니다.
... 한 곡당 너무 길지 않고 피아노 5중주, 오페라, 바이올린... 재미를 주었어요.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곡... 비교하며 들 박수가 절로 가곡으로... 기업의 이... 매일클래...

제8회 매일클래식 후기를 읽고

Director's Letter

안녕하세요? 매일클래식 음악감독 김화림입니다.
이번에도 과천시와 창원시, 서울 나루아트센터에 참석하셔서 매일클래식을 성원하여 주신 매일유업 회원 여러분들과 초대받아 오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아주 소수의 유료 표를 사서 오신 음악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해온 좋은 클래식 음악이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깊숙한 내면 세계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모습에 인상 깊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교감을 통해 내 안에 있었는지 모르던 새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새로움에 놀라거나 낯설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작품을 통한 연주자와 관객의 만남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감정과 상상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태교로, 어떤 분들에게는 부부만의 시간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클래식 기타 소리로, 또 음악을 전공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곡을 접하는 모험심으로, 이런 다양한 경험이 매일클래식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공연 장소가 많아지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매일클래식을 통해 연주자도 관객도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클래식 음악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15 매일클래식 음악감독 김화림 드림

**제37회 매일클래식
깊어가는 가을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던 시간**

처음으로 보았던 매일클래식이 벌써 19년이나 되었다니- 어떻게 매일유업 관계자분들을 위한 음악회를 멋지게 준비해주시고 연주해주셨던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을에 어울리는 선곡과 지루하지 않도록 일급 명의 연주자들이 다양한 레퍼 주셔서 2시간이 전혀 길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편안하게 일상을 도 갈 수 있었던 참 좋았던 시간- 내년엔 20주년 기념으로 롯데콘서트홀에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공연을 준비중이라니 내년 공연도 볼 수 있는 영광이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연을 기획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30회 매일클래식
첫 클래식 공연의 여운**

안녕하세요 우연한 계기로 처음으로 클래식 공연에 참석하여 귀가 호강하는 감동과 깊이 남은 여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보편적으로 클래식하면, 지루하고 졸리다는 이미지와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 너무나 인상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왜 이채서야 접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구요 기회가 된다면 해외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_ _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차이를 잘 몰랐었는데,
연주마다 각각의 악기와 연주자들의 연주에 귀와 눈 둘 다 집중하고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 오보에와 오보에니스트분에게도 큰 감동의 박수를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늘 좋은 프로그램과 고객과의 소통으로 보답해 주시는 매일유업에게 감사합니다!

cherish0***

CHRONOLOGY

매일클래식 연표

년도	회차	제목	일시	장소	연주자 및 출연자
2003	1회	Music & Life	6월 7일(토)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	진행 김화림(Violin), 김호정(Cello), 김대원(Flute), 성필관(Oboe), 이춘혜(Soprano), 박라나(Harp), 서정실(Guitar), 김기영(Composer), 안애순(Choreographer), 3 Dancers
2005	2회	명성황후 김원정과 함께하는 매일클래식	5월 21일(토)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대전 대덕문화센터 콘서트홀	진행 김화림(Violin), 김원정(Soprano), 김정현(Violin), 박성희(Viola), 김호정(Cello), 서정실(Guitar), 이민정(Piano)
			5월 28일(토) 오후 5시		
	3회	Drama & Life, 명성황후 김원정과 함께하는 매일클래식	10월 8일(토)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평촌아트홀	진행 김화림(Violin), 김원정(Soprano), 김정현(Violin), 박성희(Viola), 김호정(Cello), 이창영(Contrabass), 서정실(Guitar), 이민정(Piano)
			10월 15일(토) 오후 4시		
2006	4회	스페인의 향기	4월 22일(토) 오후 4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진행 김화림(Violin), 데이빗 고메즈(Piano), 김정현(Violin), 박성희(Viola), 지진경(Cello), 서정실(Guitar)
			4월 29일(토) 오후 4시		
	5회	스페인의 향기 II	11월 18일(토) 오후 4시	춘천문화예술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진행 김화림(Violin), 데이빗 고메즈(Piano), 김대원(Flute), 박성희(Viola), 김호정(Cello), 서정실(Guitar)
			11월 25일(토) 오후 4시		
2007	6회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과 함께하는 ‘Romantic Spring’	4월 14일(토)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문화회관 대극장 고양아울림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알렌 원(Saxophone), 김정현(Violin), 박성희(Viola), 김호정(Cello), 김정선(Piano)
			4월 21일(토) 오후 4시		
	7회	뉴욕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 알렌 원과 함께하는 ‘Memory of Autumn’	11월 10일(토) 오후 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의정부 문화재단 대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알렌 원(Saxophone), 김정현(Violin), 박성희(Viola), 김호정(Cello), 김정선(Piano)
			11월 17일(토) 오후 4시		
2008	8회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펠리 초청 ‘현악기의 향연’	5월 1일(목) 오후 8시	나루아트센터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성산아트홀 소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마르코 카펠리(Guitar), 서정실(Guitar), 정유진(Violin), 박성희(Viola), 정선이(Cello)
			5월 3일(토) 오후 4시		
			5월 10일(토) 오후 4시		
	9회	벨기에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초청 ‘아름다운 만남’	11월 8일(토) 오후 4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드니 성호(Guitar), 정유진(Violin), 박성희(Viola), 백희진(Cello), 김란도(Flute)
			11월 9일(일) 오후 4시		
			11월 15일(토) 오후 4시		

년도	회차	제목	일시	장소	연주자 및 출연자
2009	10회	Mozart & Bernstein	3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3월 8일(일) 오후 2시 30분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진행 김화림(Violin), 김원정(Soprano), 이민정(Piano), 강연중(Tenor), 심선민(Marimba), 앙상블 리드미코
	11회	Mozart & Bernstein	11월 8일(일) 오후 4시 11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3.15아트센터 대극장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김원정(Soprano), 이민정(Piano), 강연중(Tenor), 심선민(Marimba), 앙상블 리드미코
2010	12회	Mozart & Bernstein	4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4월 18일(일) 오후 4시 4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공연장 노원문화예술회관 백운아트홀	진행 김화림(Violin), 김원정(Soprano), 이민정(Piano), 강연중(Tenor), 심선민(Marimba), 앙상블 리드미코
	13회	Mozart & Bernstein	11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11월 13일(토) 오후 4시 11월 14일(일) 오후 4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3.15아트센터 대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김원정(Soprano), 현순이(Violin), 강연중(Tenor), 이민정(Piano), 심선민(Marimba), 앙상블 리드미코
2011	14회	Mozart & Bernstein	4월 23일(토) 오후 4시 4월 24일(토) 오후 4시 5월 1일(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진행 김화림(Violin), 신상준(Violin), 김원정(Soprano), 강연중(Tenor), 이민정(Piano), 심선민(Marimba), 앙상블 리드미코
	15회	가을의 소리	11월 19일(토) 오후 4시 11월 20일(토) 오후 4시 11월 26일(토) 오후 4시	평촌아트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진행 김화림(Violin), 채재일(Clarinet), 웨인 린(Violin), 아비람 라이헤르트(Piano),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2012	16회	봄의 기운	3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3월 17일(토) 오후 4시 3월 18일(일) 오후 4시	고창문화의 전당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채재일(Clarinet), 웨인 린(Violin), 빈센트 드 브리스(Piano),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17회	바로크 한마당 ‘Baroque Extravaganza’	11월 11일(일) 오후 4시 11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 11월 18일(일)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진행 김화림(Violin), 박지현(Soprano), 히로타 슌지(Piano), 최희선(Violin), 김나경(Violin),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이창형(Double bass)
2013	18회	매일클래식 10주년 기념 매일클래식과 함께하는 오페라 ‘Opera in Maeil Classic’	3월 29일(금) 오후 8시 3월 31일(일) 오후 4시 4월 2일(화)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진행 김화림(Violin), 서활란(Soprano), 정수연(Mezzo Soprano), 강무림(Tenor), 이요한(Bass Baritone), 나경은(Piano), 이지영(Violin),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19회	가을의 어느 멋진 날	11월 15일(금) 오후 1시 11월 15일(금) 오후 5시 11월 16일(토) 오후 4시 11월 22일(금) 오전 10시 11월 22일(금) 오후 2시 11월 22일(금) 오후 5시	고창여자중학교 고창군 매일유업 상하공장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보문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장성새싹꿈터	진행 김화림(Violin), 박지현(Soprano), 히로타 슌지(Piano), 에르완 리샤(Viola), 이상효(Violin), 정혜민(Cello)
2014	20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4월 12일(토) 오후 4시 4월 18일(금) 오후 4시 4월 19일(토) 오후 4시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드림투게더 양평새싹꿈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박상중(Actor), 김지은(Act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이상효(Violin),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김기영(Consultation)
	21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11월 8일(토) 오후 5시 11월 9일(일) 오후 4시 11월 16일(일) 오후 4시 11월 7일(금) 오후 5시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 춘천문화예술회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드림투게더 양평새싹꿈터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박상중(Actor), 김지은(Act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이상효(Violin), 에르완 리샤(Viola), 정혜민(Cello), 김기영(Consultation)

년도	회차	제목	일시	장소	연주자 및 출연자
2015	22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을 만나다’	3월 27일(금) 오후 4시 3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3월 28일(토) 오후 4시 4월 4일(토) 오후 4시	지구촌학교 용산아트센터 대극장 미르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박상중(Actor), 김지은(Act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이상효(Violin), 에르완 리샤(Viola), 김경란(Cello), 김기영(Consultation)
		매일클래식과 함께하는 제주 새싹꿈터 여름캠프	8월 4일(화) - 6일(목) 2박 3일	제주 새싹꿈터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박상중(Actor), 김지은(Actor), 나경은(Piano), 이상효(Violin), 한예진(Violin), 박성희(Viola), 김경란(Cello), 김광원(Percussion), 윤재현(Percussion)
	23회	가을의 인사	10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10월 3일(토) 오후 2시 10월 3일(토) 오후 5시 10월 4일(일) 오후 2시, 4시	거제 문화예술회관 경산 제2수송교육단 매일유업 경산공장 부산 범어사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김지선(Mezzo Soprano), 채재일(Clarinet), 에르완 리샤(Viola), 피오토르 쿠프카(Piano), 이민정(Piano)
2016	24회	봄의 속삭임 ‘Viennese Style’	4월 7일(목) 오후 4시 4월 8일(금) 오후 2시 4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5월 8일(일) 오후 4시	목포해양대학교 원광중학교 익산예술의전당 충남대학교 백마홀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피오토르 쿠프카(Piano), 김지훈(Baritone), 강구일(Violin), 에르완 리샤(Viola), 김경란(Cello)
	25회	보헤미안 여행	11월 20일(일) 오후 4시 11월 26일(토) 오후 4시 11월 27일(일) 오후 3시	경주예술의전당 공주문예회관 용인포은아트홀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강구일(Violin), 박유리(Soprano), 라세원(Viola), 김경란(Cello), 김홍용(Ten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2017	26회	풍자와 저항 ‘Mozart & Verdi’	4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4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4월 23일(일) 오후 4시	고창문화의전당 고창 매일유업 상하농원 여수 예술마루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이상효(Violin), 박성희(Viola), 김경란(Cello), 박지현(Soprano), 김학준(Baritone), 피오토르 쿠프카(Piano)
	27회	풍자와 저항 II ‘Mozart & Verdi’	11월 5일(일) 오후 7시 30분 11월 11일(토) 오후 4시 11월 12일(일) 오후 4시	금호아트홀 연세 백령아트센터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이상효(Violin), 에르완 리샤(Viola), 김경란(Cello), 박지현(Soprano), 김인휘(Baritone), 김지연(Piano)
2018	28회	Connect to Concert	4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4월 21일(토) 오후 7시 30분 4월 22일(일) 오후 4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영산아트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이소란(Violin), 이신규(Viola), 심준호(Cello), 김진욱(Piano), 이현욱(Oboe)
	29회	매일클래식 15주년 기념음악회 with 클래식안 앙상블	11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박진영(Cello), 이선우(Soprano), 성재창(Trumpet), 이현욱(English Horn), 피오토르 쿠프카(Conductor, Piano), 클래식안 앙상블
2019	30회	Connect to Concert II	4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4월 20일(토) 오후 3시 4월 27일(토) 오후 3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이소란(Violin),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이현욱(Oboe), 이선우(Soprano), 피오토르 쿠프카(Piano)
	31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삶과 음악 이야기’	10월 15일(화) 10월 16일(수) 10월 17일(목) 10월 22일(화) 10월 23일(수) 10월 24일(목) 10월 29일(화) 10월 30일(수) 10월 31일(목) 11월 1일(금) 11월 7일(금)	상지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 영경초등학교 경일초등학교 신목초등학교 가동초등학교 선사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왕복초등학교 등촌초등학교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이상효(Violin), 최하람(Viola), 정혜민(Cello), 박상중(Actor), 임정은(Act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년도	회차	제목	일시	장소	연주자 및 출연자
2020	32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삶과 음악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취소		서울시 22개 학교	김화림(General Artistic Director / Violin), 임수현(Stage Director), 이상효(Violin), 박수연(Viola), 정혜민(Viola), 박상중(Actor), 임정은(Act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히로타 슈지(Piano)
	33회	편지콘서트 ‘베토벤의 편지콘서트’ (영상 콘서트)	8월 23일 영상 콘서트 공개	산울림 극장	김화림(General Artistic Director / Violin), 임수현(Director), 이상효(Violin), 박수연(Viola), 정혜민(Viola), 박상중(Actor), 임정은(Act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히로타 슈지(Piano)
2021	34회	조우 : 100년 전 작곡가들의 대화 (영상 콘서트)	8월 23일 영상 콘서트 공개	매일유업 본사 매일유업 평택공장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MIC 약당야반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박동석(Violin),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김한(Clarinet), 김재원(Piano), 임정은(Script / Narrator)
	35회	교직원을 위한 일상 속 예술로의 초대	11월 10일(수) 오후 5시 11월 11일(목) 오후 5시 11월 12일(금) 오후 5시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히로타 슈지(Piano), 김효영(생활)
2022	36회	Folks in Farmer's Village (영상 콘서트)	7월 26일 영상 콘서트 공개	고창 매일유업 상하농원	김화림(Music Director / Violin), 이길재(Cello), 나경은(Piano), 장혜지(Soprano), 안대성(Tenor)
	37회	지금 그리고 얼마 전 ‘NOW AND A TIME AGO’	11월 8일(화)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김화림(General Artistic Director / Violin), 에르완 리샤(Viola), 박노을(Cello), 피오토르 쿠프카(Piano), 채재일(Clarinet), 조규희(Baritone), 히로타 슈지(Piano)
2023	38회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 ‘시간과 공간’ 1. 나를 찾아서	4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김화림(General Artistic Director), 임정은(Writer / Actor), 홍성연(Director), 이신규(Artistic Director), 김덕우(Violin), 남명렬(Actor), 신재열(Actor), 윤희동(Actor), 라명숙(Dancer), 이예린(Flute), 클래식안앙상블
		2. 커피 하우스와 카바레	6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김화림(General Artistic Director), 나경은(Music Director, Piano), 김세일(Tenor), 임소정(Soprano), 조규희(Baritone), 정윤태(Traverso) 김나연(Baroque Violin) 외 앙상블 11명, 크리스토퍼 달란 허버트(Baritone), 이원기(Saxophone), 이예린(Flute)
		3. 매일클래식이 소개하는 오늘의 음악	10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김화림(General Artistic Director), 최재혁(Conductor), 박규민(Violin), 이호찬(Cello), 최규미(Organ), 앙상블 블랭크
		4. 오페라의 사계	12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김화림(General Artistic Director), 나경은(Music Director / Piano), 조은비(Stage Director), 피오토르 쿠프카(Piano), 서선영(Soprano), 장혜지(Soprano), 신상근(Tenor), 김종표(Baritone), 신명준(Bass), 허진(Bass Baritone) Young Artist 황준석(Baritone), 강동원(Bass Baritone), 김기호(Tenor), 박건영(Tenor), 배지용(Tenor), 이정우(Tenor), 김미라(Soprano), 김민경(Soprano), 이미연(Soprano), 차예은(Soprano), 최서현(Soprano)

다시 태어나도 음악가입니다

긴장감 있는 공연을 마치고

자연에 기대어 자유를 만끽합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도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클래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영원히.



매일 20년의 기록 그리고 클래식

매일클래식 20주년 히스토리북

발행인	김정완
총괄기획	김화림
발행처	매일홀딩스(주), 매일유업(주)
기획·제작	브랜드어 BRANDEAR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77 813호 02-2277-4003 www.dearbrnd.com
원고집필	김은아
디자인	장혜미
진행	(주)컬처비즈글로벌 매일유업(주) ESG사무국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 본 히스토리북의 저작권은 매일홀딩스(주)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 본 히스토리북에 사용된 모든 문구와 촬영 이미지 등은 무단 복제, 편집 등 영리 목적의 배포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24 by Maeil Dairies Co.Ltd All rights reserved.

